

**일본**

**가공식품의 기한표시 '상미기한' 으로 통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 표시 부회는 지난 4월 2일 식품위생법과 JAS법에서 각각 별개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던 가공식품의 기한표시 용어를 「상미기한」으로 통일할 것을 결정했다.

용어의 통일은 2002년 12월에 후생노동성과 농수성이 공동으로 설치한 식품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의 보고를 받은 것.

제조후 대략 5일 이상의 식품은 식품위생법의 '품질 유지기한' 과 JAS법의 '상미기한' 두가지 용어가 있는데 소비자와 제조업자로부터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상미기한' 으로 통일한 것은 국민의 의견모집에서 지지가 높고 실제로 상품에 표시되고 있는 비율도 높았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은 4월중으로 농수성과 공동으로 국민 의견을 모집하고, 1개월간 접수받은 후, 식품위생분과회의의 답변을 받아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제조업자가 표시를 통일할 때까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료 : 일본농업신문

**미국**

**2002년 닭고기 수출 4년만에 감소**

미국 농무성(USDA)에 의하면 2002년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보다 13.6% 감소한 2,177천톤으로 4년만에 전년보다 밀돌았다.

그 중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로의 수출은 전년보다 34.0% 감소한 69만톤으로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점유율은 31.7%가 되었다.

그 밖의 주요한 수출국에 대해서는 캐나다에는 전년보다 8.0% 증가한 87천톤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홍콩으로는 전년보다 18.5% 감소한 276천톤, 멕시코에는 전년보다 14.8% 감소한 147천톤, 일본으로의 수출은 48.7% 감소한 55천톤으로 주요수출국이 전년보다 2자리수 대의 감소를 보였다.

수출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던 요인은 러시아가 위생 문제로 수입을 제한한 것과 미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등 가금의 전염병에 의해 수출 상대국이 계속적으로 수입을 전면 또는 일부 규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브라질이나 태국 등 브로일러 수출국과의 경쟁도 한 요인으로 보여진다.

2003년의 수출량에 관하여 USDA는 감소한 2002년의 수준으로부터 회복하고 전년에 비해 9.4% 증가한 2,381천톤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 각 국의 새로운 수입 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인사소식**

<b>농림부</b>	4월 8일자
△차관보	김주수
△기획관리실장	소만호
<b>국립수의과학검역원</b>	3월 29일자
△질병연구부장	김종만
<b>본회</b>	3월 1일자
△차장	이재하
△대리대우	문소정